

'아버지'를 읽는 두 가지 새로운 시각

김상환 · 정유성 교수 계간지서 소설 《아버지》 분석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베스트셀러는 현실을 반영한다. 기세가 등등하던 쥐스킨트 열풍을 잠재운 김정현씨의 장편소설 《아버지》(문이당)는 명예퇴직과 불황의 국면을 적절히 반영해 밀리언셀러에 등극한다. 문학 쪽에서는 이 소설의 '품질'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나, 사회적인 의미까지 애써 외면할 수는 없을 터. 문학 외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에 접근한 논문 두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

김상환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베스트셀러에 비친 현실〉(《철학과현실》1997년 봄호)과 정유성 교수(서강대 교양과정부·사회교육학)의 〈아버지 없는 사회〉(《황해문화》, 1997년 봄호)는 통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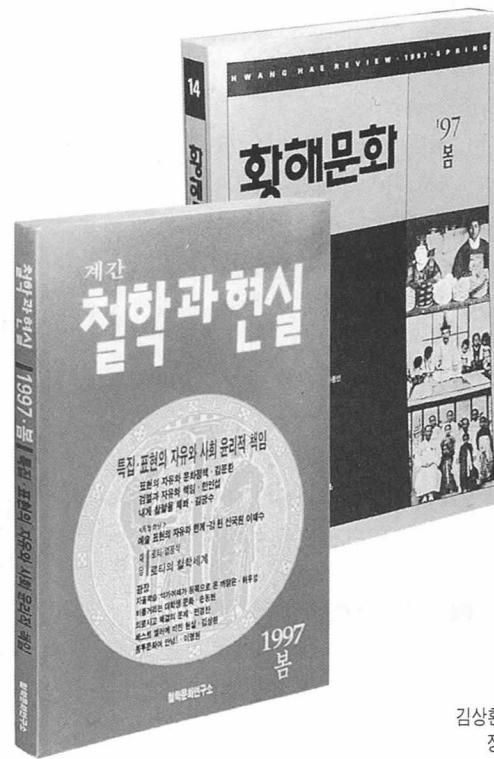
두 논문은 아버지가 없다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교수가 쓴 글의 부제는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대고 있는 이 글은 우선 '존경하거나 미워할 아버지, 모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부친살해보다 더 비극적인 일로 상정한다. 우리가 겪어온 사회적 무질서도 아버지 부재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김교수는 술에 취한 주인공이 이들의 방에서 자신이 빠져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은 우리 사회의 아버지 부재 현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해외 여행을 갈 만큼 여유 있는 주인공의 가정은 현재의 우리 사회를 비유하고 있고, 가족사진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이 비정상적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가 일정한 정치·경제적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이 잘 팔리는 이유를 불황 국면에 접어든 경제적 침체에서 찾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해석만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상업적 성공과 경제 불황의 상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사회철학에서 정치·경제의 기본단위는 가족이고, 그

문화 외적인 측면에서
소설 《아버지》에 접근한
두 논문은 우선 아버지가
없다는 상황에 주목한다.
김상환 교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대 '아버지
없는 가족사진'을 풀이한다.
또 정유성 교수는 아버지를
직무유기의 부권상실을
자기연민으로 포장한 사회의
전형적 상징으로 해석한다.



김상환 교수(위).
정유성 교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다. 결혼을 통해 성립한 가정은 정치경제학적 교환의 최소단위이며, 아버지는 교환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교환의 위축은 아버지의 위상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한다.

소설과 현실이 '아버지의 수난'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고 보는 김교수는 소설 속에 무의식적으로 투영된 현실인식은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파악한다.

"그 소설의 줄거리를 떠받치는 현실적 토대는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거꾸로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경제적 성공이다. 잠정적인 불황국면과 거기서 비롯하는 아버지들의 수난이 그 책의 상업적 성공의 배경일 수 있지만, 그 소설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상적 궤도에 오르기 위하여 아버지들이 감당해야 했던 비정상적 이력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가족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사회가 성년에 접어들면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풍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원죄의식을 일깨운 점에 이 소설의 의미를 부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베스트셀러 《아버지》에서 가족이 흘리는 눈물은 아버지를 적대하던 그런 원죄의식의 표현이자 그에 대한 속죄이다. 이 책의 상업적 성공도 이러한 속죄를 대신하는 데 힘입

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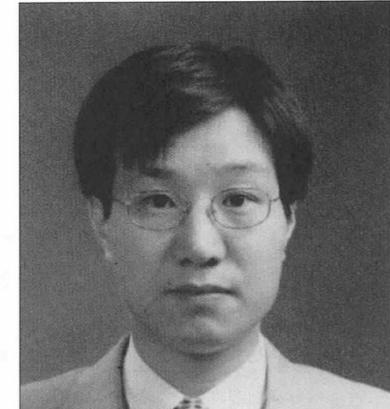
한편, 정유성 교수는 아버지들의 '비정상적 이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아버지들의 비정상적 이력

"아무리 산업혁명으로 바쁘다고 하지만 자식들이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한 주제에 우리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타박한다. 세계에서도 손꼽는 타락한 성문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문란함에 분개한다. 밖의 가혹한 철권통치에 숨죽이면서 아랫사람에게는 호통을 쳐왔던 부끄러움을 오히려 젊은이들의 철없음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겨보려고 한다. 자신은 한번도 진정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한다."

정교수에 따르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직무유기에서 온 자자자득의 부권상실을 책임전가와 자기연민으로 포장한 아버지 없는 사회의 전형적인 상징이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 아버지와 딸의 왜곡된 관계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믿는다. 명문대 영문과에 들어가도록 학과 정원의 수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을 정도다. 그러던 딸이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질타하는 편지를 보내자 몹시 서리워하고,



못 여성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정교수는 이러한 아버지의 반응을 시대착오를 넘어서 위험하기 짜이 없는 태도로 본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딸의 반발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보다, 남성들에게만 허용되는 성적인 일탈을 감행해 신파적인 연애행각과 외도를 통한 위안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과다조직사회의 탈부성화' '이중의 부권상실' 등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한 아버지상(像)을 근거로 논지를 이끌어가는 정교수의 글이, 열린 가족문화를 일구는 책임을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 사회와 가족 구성원을 탓하고 자기연민에 빠져 자기파괴를 일삼지 말고,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사회와 가정의 변화에 스스로 눈을 돌려 평등하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권고한다.

"고개를 들어 멀리 달라지는 세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내다보고, 고개를 돌려 가족과 이웃의 존재를 살펴보고, 고개를 숙여 스스로의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존재의 매무새를 추스르고 손을 내밀어 가장 가까운 곁사람들과 함께 열린 인간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삶터를 가꾸는 일에 선뜻 나서야 한다." — 최성일 기자